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 – 그리고 그것이 뜻하는 것은 …

마그 모우치코(Marg Mowczko) · 독일어 번역: Hans-Jörg Ronsdorf · 2022년 11월 · 2026년 10월 개정

장자권과 가부장제

어제 저는 한 젊은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대화 중에 그는 성경이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온건한 가부장제"를 가르친다고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이 "부드러운 가부장제"를 믿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장자 상속의 규칙을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본보기로 여겨집니다.

Merriam-Webster 사전에 따르면 "장자권"(Primogenitur[1])에는 두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1) "같은 부모의 자녀 가운데 맏이인 상태"를 뜻할 수 있고, 거기에는 여러 함의가 따릅니다. 또는 (2) "맏아들에게 속한 배타적인 상속권"을 뜻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의의 의미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는 같은 부모, 곧 하나님의 자녀로 이해될 수 있고, 아담은 그 가운데 맏이입니다 (눅 3:38; 고전 11:12 참조).

창세기 2장과 디모데전서 2:13(창세기 2장의 요약)은 아담(또는 ha'adam)이 첫째로, 하와가 둘째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본문들은 이 순서가 중요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가리킵니까? **이 본문들은 남자가 첫째이고 여자가 둘째인 장자권 또는 우선권의 지속적인 유형이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까?** 이 성경 말씀들이 어떤 식으로든 오직 남성만의 권위나 온건한 가부장제를 규정합니까? 이 말씀들은 하와를 배제하는, 아담을 위한 "배타적인 상속권"을 가리킵니까?

장자권 논증이 성립하지 않는 다섯 가지 이유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가부장제를 창세기의 장자권과 연결하는 것은 문제투성이입니다. 그것이 성립하지 않는 다섯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세기 2:21-22에 묘사된 수술 이후, 에덴의 첫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지으셨을 때와 달라졌습니다. 그의 몸에서 한 부분 또는 한쪽 옆구리가 떼어졌고[2], 이제 그의 한 부분이 없어져 여자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되었습니다. 아담(또는 ha'adam)에게서 하와에게로 몸의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옮겨졌기 때문에, 남자가 첫째이고 여자가 둘째라는 생각은 덜 분명하고 덜 결정적이 됩니다.

2. 장자권은 태어난 순서에 관한 것이지만, 아담도 하와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아담이 "맏아들"이었다고 말하는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3. 장자 상속의 관습은 이스라엘 사회를 포함한 많은 고대 사회의 일부였지만, 그것은 아들들에게만 해당되었지 딸이나 여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4. 이 관습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유명한 가문에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신시아 웨스트폴(Cynthia Westfall)은 이 넷째 요점에 관해 이렇게 씁니다.

> 창세기 이야기 전체에서 처음부터 분명한 것은, 먼저 태어나거나 먼저 온 사람이 반드시 권위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형제들 사이의 장자권은 거듭 뒤집혔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근거로,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남성에게 권위가 있다고 논증할 수는 없다. 가인이 먼저 태어났지만 아벨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다. 르우벤이 먼저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의 계보는 유다를 통해 이어졌고, 요셉이 가족을 구원하고 그들에 대한 권위를 맡았다. 므낫세는 요셉의 맏아들이었지만 야곱은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것이라고 말하려고 그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었다.

구약 성경의 다른 책들도 하나님께서 동생들에게 그 형들보다 더 큰 권위를 주셨음을 보여 줍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형 아론보다 더 큰 권위를 가졌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맏아들이 아니었는데도 다윗의 뒤를 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 상속의 관습을 엄격하게도, 일반적으로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몇몇 중요한 경우에 이 관습을 따르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22에서 하나님은 은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남자들만이 아니라)를 자신의 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5. 중요한 것은, 장자권이라는 개념이 새 창조 안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는 설 자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자기 나라에서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마 20:16)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이와 비슷하게 반문화적이고 공평하게 만드는 다른 원리들도 가르치셨습니다.

장자권과 예수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에서 장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자신입니다. 웨스트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는 우리 모두의 맏아들"이시며(롬 8:29; 골 1:15, 18), 이 진리가 "그를 따르는 이들 사이의 관계를 상대화한다"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는 평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별과 상관없이 우리의 큰형님의 형상을 본받아 가기 때문입니다.**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사회에 도입하신 역학도, 예수께서 승인하신 역학도 아닙니다.[3] 더 나아가 바울은 단지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는 이유로 남자에게 특별한 지위나 특권이 있다는 생각을 무력화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12에서 바울은, 첫 여자는 첫 남자에게서 나왔지만 다른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태어났다고 가르칩니다. 그는 이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근원으로 삼습니다. **여기에는 성별 사이의 차등이 아니라 성별 사이의 상호 의존이 있습니다.**

> **고린도전서 11:11-12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아담)에게서 난 것같이 남자도 여자(가인 이하)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자는 자기 자매들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지도 않고, 더 나은 유산을 받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놀라운 유산에 참여할 것입니다(엡 1:21-22). 그리스도인 남자와 여자는 장자권의 흔적이 조금도 없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의 큰형님이신 예수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롬 8:16-17)!

새 언약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새 창조에 관한 놀라운 신학적 진리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지금 우리가 맺는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공동체, 곧 교회 안에는 어떤 종류의 성별 위계나 가부장제도 설 자리가 없어야 합니다.**

B. T. 로버츠(B.T. Roberts)는 남자 다음 둘째 자리에 있는 여자에 관해 이렇게 논평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이 여자를 남자보다 열등하고 남자에게 예속된 존재로 묘사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여자는 교회에서든 국가에서든 남자와 동등한 지위를 차지하도록 허락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 여자가 마지막에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든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인가를 증명한다면, 그것은 여자의 우월함이다. 창조 사역은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 규칙적인 단계를 따라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B. T. 로버츠, 『여성 안수』(Frauen ordinieren, 1891)

원문: 마그 모우치코, "Adam was created first and this means …", 2017년 3월 3일, https://margmowczko.com/adam-created-first/ – 저자의 친절한 허락을 받아 독일어로 번역함.

주

1. 장자 상속제(Primogenitur)는 전문 용어로, 세상을 떠난 사람의 유산과 법적 지위를 맏이만 물려받고 그 동생들은 고려되지 않는 상속 순서를 가리킵니다. 맏이의 상속자이자 법적 승계자는 다시 그 맏이의 맏이입니다. Wikipedia
2. 창세기 2장에서 전통적으로 "갈빗대"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 tsela는 보통 "옆구리"를 뜻합니다. (스트롱(Strong) 번호 6763을 보십시오.) 존 H. 월턴(John H. Walton)은 히브리어 성경의 다른 곳에서 tsela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한쪽 옆구리를 취하셨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아마 하나님께서 아담을 두 쪽으로 가르시고 그 한쪽으로 여자를 지으셨다는 뜻일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Walton, The Lost World of Adam and Eve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15), 78.
3. **예수께서는 남자가 첫째 자리에 있고 여자가 둘째 자리에 있는 창조 질서 같은 것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서에서 그분은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창세기 1장을 인용하십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9:4에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는 또한 창세기 2장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예수께서는 결혼 안의 하나 됨(곧 하나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결혼 안에 남성의 권위나 성별 위계가 있다거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마 19:5-6.**